

- 1. 영생대도의 실천
- 2. 영생학의 보급
- 3. 영생문화의 창달

주님을 초초로 바라보고 고도로 사모하라. 나라는 존재의식을 초초로 죽이고 짓이겨라. 형제의 죄를 내 죄로 여겨라. 인류는 한 몸 누구든지 내몸처럼 여겨라.

성경의 자유율법은 심판의 율법이다

(야고보서 2장 12절)

자유율법실천운동 마무리를 잘하자

자유율법

- 주님을 초초로 바라보고 고도로 사모하며 항상 순종하라.
- '나'라는 존재의식을 초초로 죽이고 짓이겨라.
- 형제의 사정을 내 사정으로 여겨라.
- 형제의 죄를 내 죄로 여겨라.
- 인류는 한 몸 누구든지 내 몸처럼 여겨라.

12월은 율법을 시작하면서 세웠던 계획을 얼마나 이루었나 점검을 해보는 달이다. 각자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 지금까지 실천해 왔을 것이다. 목표 달성을 위해 막바지 점검을 하고 나머지 힘을 다해서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승리제단 신도회(김상욱 회장)에서는 2014년을 시작하면서 율법을 '자유율법실천운동의 해'로 선포하였고, 전 성도들이 율법은 자유율법을 50% 이상 실천할 수 있는 해로 기필코 만들자고 결의하였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을 맞아 각자 어느 정도 자유율법을 지키고 있는지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다.

누구든지 내 몸처럼 여겨져야 심판을 피할 수 있다

성경 야고보서 2장에 나오는 자유의 율법은 심판을 받을 때 적용되는 율법(약 2:12)이라고 성경은 기록하면서 누구든지 율법을 지키다가 형제를 차별하게 되면 모든 율법을 다 어긴 것이 된다(약 2:10)며 형제를 내 몸처럼 여기며 무차별적인 사랑을 행하라고 기록하고 있다.

이렇게 기술된 자유의 율법은 형제를 내 몸처럼 사랑해야 그날에 심판에 걸리지 않는다는 것인데 그러려면 죄가 해결되어야 된다. 그런데 형제를 내 몸처럼 여기는 것이 왜 심판에 안 걸리게 되는지, 그러한 죄를 다 해결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성경은 명확하게 설명되어 있지도 않고 설명해 주는 목자(牧者)도 없었다.

전도관의 박태선 장로님도 신도들에게 자유율법을 지킬 것을 강조하였지만 자유율법의

승리제단 신도회(김상욱 회장)는 2014년을 '자유율법실천운동의 해'로 선포하였고, 전 성도들이 자유율법을 50% 이상 실천하는 해로 만들자고 제시하였다.

성경 야고보서 2장에 나오는 자유의 율법은 심판을 받을 때 적용되는 율법이다. 자유의 율법에 의하면 형제를 내 몸처럼 사랑해야 그날에 심판에 걸리지 않는다. 자유율법의 이론적 근거는 누구든지 내 몸처럼 여기는, 즉 사람은 누구나 한 몸이라는 것이다.

완벽하게 자유율법을 지키려면 '나'라는 의식이 개입할 수 없는 경지에 올라가야 한다. 죄의 뿌리가 되는 '나'라는 의식을 없애야 누구든지 내 몸처럼 여길 수 있게 된다.

당신은 몇 퍼센트 자유율법을 지키고 있는가? 조희성 구세주께서는 영생을 확신하는 마음이 이루어지고 음란죄를 이겨야 자유율법의 50% 선에 도달하였다고 말씀하셨다.

내용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언급하지 못하였다. 오직 조희성 구세주께서만 세밀하게 언급하셨던 것이다.

누구든지 내 몸처럼은 한 몸 사상에서 비롯된다

누구든지 내 몸처럼 여기는 자유율법의 이론적 근거는 바로 사람은 누구나 한 몸이라는 데에서 출발한다. 즉 인류는 지 위고하 및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누구나 다 아담과 헤와(하와)의 자손이므로 나무에 비유하자면 한 나무에 수많은 가지가 뻗어 있는 것과 같다. 동쪽으로 뻗은 가지나 서쪽으로 뻗은 가지나 다 같은 한 나무에서 나온 가지인 것처럼 인류는 누구나 한 몸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누구든지 내 몸처럼 여기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결과이며 보상이 필요치 않은 당위의 문제라는 것이다.

'나'라는 의식을 없앤 승리자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 자유율법의 실천은 쉽지 않다. 누구든지 내 몸처럼 여길 때

'나'라는 의식이 개입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걸옷을 달라는 사람이 있을 때 속옷까지도 벗어주려고 성경은 말하는데 '그럼 나는 어떻게 하지'라고 '나'라는 의식이 개입하면서 자유율법이 지켜지지 않는다. 여기서 바로 '나'라는 의식이 심판을 받게 되는 죄의 뿌리를 알 수 있다.

따라서 완벽하게 자유율법을 지키려면 '나'라는 의식이 개입할 수 없는 경지에 올라가야 한다. '나'라는 의식을 완전히 없앤 존재가 바로 '나'를 이긴 승리자이다.

다시 말하자면 죄의 뿌리가 되는 '나'라는 의식을 없애야 누구든지 내 몸처럼 여길 수 있게 되며, 그는 죄를 해결한 존재이므로 심판에 걸리지 않게 되는 것이다.

자기 자신을 점검하는 방법

먼저 자신 속의 가장 강한 마귀가 무엇인지 파악하여 그 마귀와 결정을 벌여서 승리하였나를 점검해야 한다. 예를 들면 헬기마귀가 가장 강하게 움직이는 사람은 헬기마귀가 없

어졌는지, 음란마귀가 강한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음란마귀가 발동하지 않는지 점검을 해야 한다. 한 번 마귀를 이겼다고 해서 그 마귀가 소멸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방심하는 순간 마귀는 또 다시 자신 속에 들어와 죄를 짓게 한다. 그래서 성경은 '나를 항상 버려라'라고 말하고 있다.

그렇다면 자유율법의 50%라는 선은 어느 정도일까? 조희성 구세주께서는 영생을 확신하는 마음 상태에 도달했는지와 음란한 마음이 안 일어나는 상태를 50% 선에 도달하였다고 말씀하셨다. 이 50%라는 선은 매우 중요한 기준이다. 이 기신 하나님으로부터 비치는 영광의 빛에 의해 그날에 하나님으로 거듭날 수 있으려면 50%라는 선을 넘어서야 되기 때문이다.

지금도 늦지 않았다. 당신은 몇 퍼센트 자유율법을 지키고 있는가? 심판의 칼은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긴 자에게는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고 또 이기자!*

김충현 기자

언론중재위원회 1차 조정심리 11월 25일 열려

승리제단 신도회(회장 김상욱)가 11. 7. 언론중재위원회에 KBS를 상대로 정정보도신청서를 제출한 결과 11.25. 11시에 1차 조정심리가 열리게 되었다. 언론의 피해에 대한 신속한 구제를 목적으로 설립된 중재위원회에는 현재 판사

를 비롯한 전문가들이 중재위원으로 활동하며 이 사건은 중재2부에 배당되었다. 현재까지 KBS에서는 이에 대한 답변을 하지 않고 있다. KBS는 10.23 '해피투게더' 프로그램에서 이영돈 피디를 출연시켜 방송을 하던 중 "모 종교단체에서 자신을 살해하겠다는 협박을 받았다"고 거짓말을 했었다.*

금주의 말씀 요절

전 세계를 향하여 선포한다(49)

"나의 생각과 감정을 다 죽여야 한다"

이 사람(조희성님)이 밀실에 부를을 받아 들어가니 지난 일을 생각하면 뒤돌아보는 음란죄라고 야단을 치셨다.

은혜자를 기다리면 기다리는 음란죄, 비교하면 비교하는 음란죄, 이 율을 내니 이유변명죄를 지었다고 야단을 치셨다. 예상을 하면 예상하는 음란죄, 가족을 생각하면 관심의 음란죄라고 하고 인간의 생각을 하면 인간의 판단의심죄, 말기지 않

면 말기지 않았다고 야단을 치셨다. 누구를 만나는 순간 반가워해도 반가워하는 음란죄다.

나의 이기심에서 나오는 모든 욕망과 생각 전체를 죽여야 한다. 욕심덩어리인 나를 죽여야 하나님이 되고 이긴자가 된다. 나 개인의 생각이 들어가면 여지없이 피가 썩는다. 그러므로 이 길은 각자가 누구도 아닌 나 자신과의 싸움이다.

구도의 길

화를 참으면 대복(大福)을 받습니다

우리는 마음의 파동 속에서 서로의 파동을 나누며 살아간다. 하나님 이 다 되신 분들의 파동에 합입어나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생활하는 시간이 길어져 간다.

유명한 스님의 '화를 참으면 대복을 받습니다' 라는 말씀과 다른 수행에서도 기본적으로 화를 내서는 안 되니 깨달음을 얻기 전에 우선 화를 안 내는 사람이 되도록 훈련하라고 한다.

아기가 태어나면 나라의 의식이 없어 무의식으로 산다. 가게에 가서 과자를 그냥 집어오고 누가 과자를 뺏아 먹어도 덤덤하다. 그러나 3-4살쯤 되면 나와 너라는 의식이 생겨 자신의 것을 챙기기 시작한다. 이 무의식의 순수한 마음은 분별이 없는 마음이고, 너와 내가 없는 의식이라 진정한 사랑의 의식이며, 타인을 돕는 것이 나를 돕는 것이 되는 의식이다.

우리들의 삶은 표면의식과 무의식(잠재의식, 순수의식)으로 살아간다. 표면의식을 나로 생각하고 살기 쉬운데 사실은 무의식에서 잠재하고 있던 어두운 마음, 밝은 마음이 올라오는 것이 표면의식이다.

우리가 생각하고 행한 것이 무의식에 쌓여 우리를 괴롭히는 업장을 만든다. 이 업장이 닦아야 할 마음이다. 무의식에서 어두운 타기의 마음이 올라오지 않으면, 즉 마음을 닦아 수행이 깊어지면 아기의 순수한 마음이 회복되어 작은 것에 행복하게 된다. 즉 미움, 증오, 분노의

마음을 내려놓을 때 행복하다.

승리제단에서는 미워하는 마음, 화가 나는 마음 등의 어두운 마음이 올라오면 참는 마음의 단계에서 감사의 마음의 단계로 옮겨야 한다. 유명한 스님의 '화를 참으면 대복을 받습니다' 라는 말씀과 다른 수행에서도 기본적으로 화를 내서는 안 되니 깨달음을 얻기 전에 우선 화를 안 내는 사람이 되도록 훈련하라고 한다.

화가 올라올 때 확실하게 정화하는 방법은 올라오는 화를 빨리 알아차리는 연습이 우선 완성되어야 하고 그다음 감사하면서 화를 내서는 자신에게 많은 피해를 준다는 것을 확실히 인식해야 한다. 그러나 화를 물리쳐야 할 적군으로 생각 말고 하나님의 마음을 내는 훈련을 시키는구나 생각하면서 화나는 자신의 마음을 인정해 주면서 감사를 해야 스트레스가 덜하다.

상대방에게 화나는 마음을 퍼붓고 있다고 생각이 드나 사실은 무의식은 너와 내가 없으므로 나 자신의 무의식에 어두운 마음인 업장을 차곡차곡 쌓고 있는 것이다. 나의 미래를 암울하게 만드는 업장을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이 업장을 빨리 청산하여 하나님의 마음인 기쁨과 희열의 마음, 행복한 마음이 올라오지 않으면, 즉 마음을 닦아 수행이 깊어지면 아기의 순수한 마음이 회복되어 작은 것에 행복하게 된다. 즉 미움, 증오, 분노의

윤금옥 기자

승리제단에서는 諸宗教의 경전에 예언되어 있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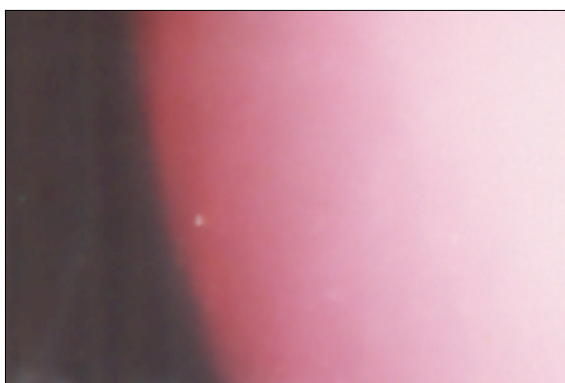
제종교

三神一體 一人出 된 眞人の 증표인 甘露가 항상 내립니다

삼신일체 일인출

진인

감로



본부제단에서 내린 이슬성신



본부제단에서 내린 이슬성신



본부제단에서 내린 이슬성신

이슬성신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신(호세아 14:5)이라 빛의 형상(요한 1장)으로 나타난다.

구세주를 진심으로 따르는 승리제단 신도들이 있는 곳에는 언제나 구세주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기 때문에 이슬성신이 카메라에 잡힌다. 영안이 열린 사람은 이슬성신을 볼 수 있지만 죄인의 눈에는 안 보인다. 대신 죄가 없는 카메라 렌즈에는 찍히는 것이다.